

2023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 시각예술-창작지원 】 심의평

2023년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시각예술-창작 지원> 분야 심의는 행정심의, 서류심의, 인터뷰 심의를 걸쳐 진행되었으며, 지원자 총 248명 중 최종 18명의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제출한 포트폴리오 및 작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올해 신작 창작활동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며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네 분 심의위원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수하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많은 작가가 지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다. 시사적인 관심사와 이미 여러 차례 주목받은 주제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다양성에서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진지한 태도만큼 시각적 시도와 매체의 범주가 다양한 점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시류에 동참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작가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 다양한 주제 의식과 연령대로 구성된 작가들의 지원서를 검토하였고 작가마다 쟁점이 두드러지는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었다. 심의 과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건진 단서들을 심화시켜 작업으로 발전시키는 작가들을 다수 목도했다.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시각화시킬 작가들의 역량을 믿는다. 상향 평준화된 작가 중에서도 최종의 결과에서 아쉬운 작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작업 주제를 다면적인 시각에서 점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며 지난 작업에서 한 단계 나아간 계획서를 바라는 마음 또한 크다. 최종 선발에 이름 올리지 못했더라도 그간의 노력과 열정에 대해서 보고 읽고 느낀 자리였다.

○ 올해 우수한 역량의 경쟁력 있는 작가들의 지원으로 심의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평면이나 조형성의 문제를 다루는 작가들보다는 생동하는 물질간의 관계나 균열에 의해 소환되는 사회적 불합리성이나 불평등함을 말하고자 하는 작업이 많았다. 작업에 대한 변별력보다는 기존 작업과는 조금은 진화된, 또는 다른 시선에서의 작가적 고민을 보여주는 신작 계획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 생태나 디지털 환경 등 시의성 강한 소재를 다루는 작가들이 다수 지원했지만, 조형에 대한 집요한 관심을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작가들도 눈에 띄어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가들을 선정하게 되었다. 작가적 역량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번 지원 심사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기존 작업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예상되지 않는 작업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선정작들은 주제의 다양성은 충분했으나 평면 작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약간 아쉬웠다.

2023.2.23.

심의위원장	진휘연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심의위원	안소현	(독립 큐레이터)
심의위원	오세원	(재단법인 일심 이사장)
심의위원	김현주	(독립 큐레이터)